

# 문제음주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반사회성 성격특성과 수동공격성 성격특성

김희영      손정락<sup>†</sup>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음주를 보이는 대학생의 음주행동변화를 위해 알코올 의존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성격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J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대학교의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음주문제 측정 질문지와 단축형 세 차원 성격질문지의 선발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참여자를 선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수동공격형 성격집단 7명, 반사회형 성격집단 7명을 선발하여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음주의 양과 빈도 질문지 및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사회형 성격집단보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주간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더 감소되었으며,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더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음주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집단의 성격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치료적 접근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문제음주, 수동공격형 성격, 반사회형 성격,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손정락,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Tel: 063-270-2927, Fax: 063-270-2933, E-mail: jrson@jbnu.ac.kr

술은 인간의 생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습관적이고 과도한 음주는 신체 및 정신질환을 유발시키고 가정파탄이나 범죄 행동 및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의 역기능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습관화된 음주는 스스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으며,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한상미, 1997).

한국 대학생의 음주 경험을 보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전체 중 94.9%에 달한다. 이중 1회 음주 시 한국의 잠정적인 권유 음주량은 4잔 이하를 마시는 경우는 23.3%밖에 되지 않아 많은 대학생들이 문제 음주를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신정연, 손정락, 2011).

알코올과 관련된 장애를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분류체계는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제정한 정신장애의 기준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 DAM-IV, 1994)과 WHO의 질병분류체계인 국제질병분류-제10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10, 1992)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를 과음이나 의존증상이 있거나 의료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학업적·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서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행동을 뜻하는 용어로 문제음주를 정의하고 사용하고자 한다(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IOM, 1990).

문제음주와 관련된 많은 변인들로는 알코올에 관한 태도, 불안, 우울, 스트레스, 기대, 성격 특성, 동기, 가족력 등 다중변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러한 변인들 중 성격은 알코올 중독의 원인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성격요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지금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신행우, 1999). 또한 탁진국(2000)은 개인의 성격 특성(A유형 성격, 5요인 성격요인)과 생활사건(학과적응, 부모관계, 이성문제, 및 흡연문제)이 음주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연구 결과 성격특성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이유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사건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Cloninger(1987: 신행우, 1999에서 재인용)는 다양한 환경자극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들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즉 개인차를 중요시하면서 성격장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격의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 차원 성격검사(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만들게 되었다.

Cloninger(1987: 신행우, 1999에서 재인용)가 가정한 세 가지 성격차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경험의 추구, 위해회피, 보상의존성이다. 새로운 경험 추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상에 대한 단서들에 반응하여 강렬한 기분의 들뜸이나 흥분을 향한 유전적 경향성으로, 단조로움의 회피뿐만 아니라 잠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빈번한 탐색적 활동을 유도한다. 위해 회피는 혐오적 자극 신호들에 강렬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으로, 처벌과 새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또 기대했던 보상의 생략으로 생길 좌절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억제하도록 학습하는 경향성이다. 보상의존성은 보상의 신호들(특히 사회적 승인이나 원조에 대한 언어적 신호들)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이

전에 보상과 연합이 되었던 행동의 소거에 저항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려 하는 유전적 경향성이 다.(p. 108)

이와 관련하여 신행우(1999)의 연구에서는 일반 음주자들의 성격 특성이 음주정도와 음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음주문제에 대한 성격적 위험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것은 세 차원 성격검사척도 점수의 고저로 구성된 성격 유형에 따라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중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연구였다.

신행우(1999)는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에서 음주의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난 새로운 경험추구와 위해 회피 차원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성격 유형을 분류하였다. 새로운 경험추구 차원과 위해 회피차원의 점수가 둘 다 높은 집단을 수동공격형, 새로운 경험 추구점수는 높으나 위해회피 점수는 낮은 집단을 반사회형, 새로운 경험 추구점수는 낮지만 위해 회피 점수는 높은 집단을 수동의존형, 그리고 새로운 경험추구와 위해 회피 차원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을 기분고양형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성격 유형 집단들 중 수동-공격형 집단과 반사회형 집단이 음주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문제 정도 또한 수동의존형 집단과 기분고양형 집단에 비해 이 두 성격 유형 집단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 결과,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주로 정신과에 입원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일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

었다. 또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적 중재 역시 거의 없었다. 또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성격 특성이나 병발 정신장애를 밝히는 것은 개개의 환자에게 더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Griffin, Weiss, Mirin, Wilson, & Bouchard-Voelk, 1987; 신행우, 1999에서 재인용)는 연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문제 음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 개인적 특성 즉, 성격 유형에 따른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음주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경감 될 것인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신행우(1999)의 연구 결과, 특히 수동공격형 성격집단과 반사회형 성격집단이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공격형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신정, 2000; 신행우, 1999), 반사회형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조절 및 인내력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신행우, 1999). 정명진(2010)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 특성을 고려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주가 아닌 다른 대안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고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적절히 표출해 낼 수 있도록 감정표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음주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수동공격형과 반사회성 성격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반사회성을 가진 사람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는 스타일이다. 충동적 성향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술자리를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3차 이상 가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알코올 의존증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화-분노 관리와 충동조절 훈련 등이 좋다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수동-공격형의 특성은 늘 우울하고 기분이 침체돼 있고, 평상시에는 온순한 양 같아 보인다. 자신감이 없고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조용하고 신중해 보이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금세 포악한 늑대로 돌변한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때 풀어주지 못하고 계속 쌓아뒀다가 술을 마신 후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만 2세 쯤 배변훈련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때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분노를 일으키고, 지나치게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수동적이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복잡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다(이충현, 2008). 요약하면, 수동공격형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술로 푸는 경향이 있고, 반사회성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충동성이 주요 특징으로 스트레스가 없어도 충동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음주패턴에서도 보면, 알코올중독의 유형 중, 유형1 알코올중독은 오랫동안 술을 끊을 수는 있지만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폭음을 중단할 수 없는 통제외 상실이 주된 특징이며, 이 유형은 수동-의존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다. 반면 유형2 알코올중독은 술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충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려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주된 특징인데, 반사회적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다(Cloninger, 1987). 이렇게 성격특성에 따라 음주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음주자들의 성격특성에 따라 치료프로그램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은 성격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알코올 사용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문제음주를 가장 많이 보이는 반사회성과 수동공격형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수동공격형과 반사회성 집단에게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목적은 성격특성에 따라 치료프로그램을 달리해야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집단 간 치료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두 집단간의 음주행동변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또는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제안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음주문제를 가진 반사회형 성격집단보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음주량을 더 감소시킬 것이다.
2.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음주문제를 가진 반사회형 성격집단보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음주빈도를 더 감소시킬 것이다.
3.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음주문제를 가진

반사회형 성격집단보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 방 법

### 참여자

참여자는 전주지역 2개 대학교 600명의 남녀 대학생으로, 이들에게 음주문제 측정질문지와 단축형 세 차원 성격질문지가 실시되었다. 자료의 채점과정에서 일률적인 응답 및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자료 66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53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세 차원 성격은 새로운 경험 추구, 위해 회피, 보상의존성이다. 반사회성 집단은 단축형 세 차원 성격질문지에서 새로운 경험추구는 높으나 위해회피는 낮은 집단이며, 수동공격형 집단은 새로운 경험추구와 위해회피 차원 둘 다 높은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이 두 집단(상하위 30%)에 해당하면서 문제음주(상위 30%)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음주문제 질문지에 충족되는 대상자는 성격집단에 충족되지 못하였고, 성격집단에 충족되는 대상자는 음주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동공격형 성격 또는 반사회형 성격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다보니, 이에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성격집단에 충족되는 대상자가 더욱 제한적이어서, 음주문제를 지니고 있더라도 탈락되는 대상이 많았다. 또한 연구 대상자로서 충족하더라도 치료의 동의가 허락되지 않아 참여자를 선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최종참여자는 치료동기가 있고,

문제음주와 수동공격형 성격을 가진 집단 7명(남 5, 여2), 문제음주와 반사회형 성격을 가진 집단 7명(남4, 여3)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각 집단을 따로 따로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연령 범위는 19-27세였고, 평균연령은 21.9세였다.

### 도구

**음주문제 측정 질문지.** 음주문제 측정 질문지는 신행우(1998)가 음주문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 연구와 외국 연구를 개관하여 선정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0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는 거의 항상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정(2000)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alpha = .84$ 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양과 빈도 질문지(Drinking Quantity and Frequency Questionnaire: DQFQ).** 음주빈도-양 질문지는 Cahalan과 Cisin(1968)이 제작한 것으로, 지난 주 동안 한 번에 최대한 소비한 음주량, 주말 저녁에 일반적으로 먹는 양, 지난 주 동안의 음주 빈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윤영(2000)이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윤영(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alpha$ 는 .75로 나타났다.

**음주 통제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The Controlled Drinking Self Efficacy Scale:**

CDSE). Sitharthan, Kavanagh 및 Sayer(1996)가 제작한 이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5개의 문항은 높은 음주의 위험 상황에서 알코올 섭취를 통제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효능을 평가하고 5개 문항은 음주의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확신감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조절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윤영(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4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alpha$ 는 .72로 나타났다.

**단축형 세 차원 성격 질문지(Shorter version of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신행우(1998)가 Cloninger의 세 차원 성격질문지를 우리나라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요인타당도를 확인하고 단축형으로 구성한 46문항의 질문지이다. 단축형 세 차원 성격 질문지는 세 가지 성격차원 즉,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이 15문항, 위해회피 차원이 25문항, 보상의존성 차원이 6문항으로 구성된 성격 검사이다. 새롭게 구성한 단축형 TPQ 차원의 내적 합치도는 새로운 경험추구 차원이 .85, 위해회피 차원이 .87, 그리고 보상의존성 차원이 .76으로 나타났다. 신행우(1998)는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에서 음주의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난 새로운 경험추구와 위해회피 차원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성격 차원(새로운 경험추구, 위해회피)에서 각각 백분위를 고려하여 상하위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높고 낮음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새로운 경험추구와 위해회피 차원이 둘 다 높은 집단을 수동-공격형 집단으로, 새

로운 경험추구는 높으나 위해회피 차원은 낮은 집단을 반사회형 성격집단, 새로운 경험추구는 낮지만 위해회피 차원은 높은 집단을 수동-의존형 집단, 그리고 새로운 경험추구와 위해회피 차원이 낮은 집단을 기분고양형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alpha$ 는 새로운 경험추구 .82, 위해회피 .86, 보상의존성 .78로 나타났다.

### 절차

전주지역 2개 대학교 남녀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음주문제 측정질문지와 단축형 세 차원 성격 질문지 모두에 충족되는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나서 전화연락을 통해 최종적으로 치료에 동기가 있는 수동공격형 성격집단 7명, 반사회형 성격집단 7명을 선발하여,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2월 셋째 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총 8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2회기로 각 회기마다 6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다. 첫 회기 때, 모든 피험자들에게 동의서와 서약서를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음주의 양과 빈도 질문지와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종결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주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음주자를 위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신재정, 황인복, 김석산 및 채숙희 역(2002)의 알코올 전문 치료자가 되는 길의 스트레스 관리를 재구성하여 본 연구자와 코리더가 실시하였다.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 1회기

목적: 라포형성 및 프로그램소개

내용: 집단원과 치료자가 서로 소개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 2회기

목적: 알코올에 대해 바로알기 및 나의 음주행동양식 파악하기

내용: 잘못된 알코올에 대한 상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알코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준다. 나의 음주행동양식을 작성하고 나서, 집단원들과 자신의 음주행동양식을 확인해본다.

### 3회기

목적: 스트레스 상황 극복하기

내용: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대처방법으로 알코올 사용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좀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 배워본다.

### 4회기

목적: 효과적인 스트레스관리 및 알코올을 줄이기 위한 방법 배워보기(이완훈련소개)

내용: 생각 바꾸기 기록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시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은 없는지 작성해보고, 알코올 대신 이완훈련을 연습해보도록 한다.

### 5회기

목적: 효과적인 스트레스관리 및 알코올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 배워보기(운동소개)

내용: 음주행동양식, 스트레스분석지, 생각바꾸기 기록등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완훈련을 연습해 보았을 때의 느낌과 성과를 이야기 해본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실시해본다.

### 6회기~7회기

목적: 인생의 다른 측면을 변화시키기

내용: 이완과 운동을 지속해가면서, 스트레스관리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생의 다른 측면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한다. 인생의 다른 측면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해결기술, 유쾌한 활동들을 발달시키기, 사회적 기술등을 설명하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보도록 한다.

### 8회기

목적: 스트레스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내용: 앞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게 되더라도 음주대신 다른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 결 과

수동공격형 성격집단과 반사회형 성격집단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에 사용된 모든 척도에 대해서 집단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성격집단간) $\times$ 3(평가시기)의 split-plot Design을 통해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종속측정치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모든 검증은 유의도 수준

.05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12.0을 사용하였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과 반사회형 성격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실시 전에 사용한 모든 척도에 대해서 집단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주의 양(주간음주량, 주말음주량)과 빈도,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에 있어서 사전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피험자들이 동질적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각 성격집단의 평가시기에 따른 각 종속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수동공격형 집단에서 주간음주량, 음주빈도, 음주통제효능감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

말음주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형 집단에서는 주간음주량, 주말음주량, 음주빈도, 음주통제효능감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과 사후를 비교했을 때, 비록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주간음주량, 주말음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과 반사회형 성격집단의 평가시기에 따른 각 종속측정치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간음주량은 집단간(수동 공격형 성격집단, 반사회형 성격집단) 효과에 대한 검사에서 집단에 의한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12)=5.494, p<.05$ , 또한 집단

표 1. 수동공격형 성격집단과 반사회형 성격집단간의 사전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종속변인	수동공격형집단(n=7)	반사회형집단(n=7)	집단간차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i>t</i>
주간음주량	8.29(2.22)	9.57(2.51)	-1.017
주말음주량	6.86(3.39)	8.86(2.97)	-1.175
음주빈도	3.14(.90)	3.14(.90)	.000
음주통제효능감	65.71(3.50)	65.14(2.55)	.349

표 2. 각 성격집단의 평가시기에 따른 각 종속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	사후	추적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주간음주량	수동공격형 집단	8.286(2.215)	7.143(1.464)	7.143(1.345)
	반사회형 집단	9.571(2.507)	9.857(1.864)	10.000(1.732)
주말음주량	수동공격형 집단	6.857(3.388)	6.429(3.259)	6.429(3.259)
	반사회형 집단	8.877(2.968)	9.143(3.078)	9.143(2.968)
음주빈도	수동공격형 집단	3.143(.900)	2.143(.690)	2.286(.488)
	반사회형 집단	3.143(.900)	3.143(.690)	3.286(.756)
음주통제효능감	수동공격형 집단	65.714(3.498)	69.143(2.410)	69.000(2.887)
	반사회형 집단	65.143(2.545)	65.000(2.450)	64.714(2.290)



내 효과에 대한 검사에서 평가시기(사전, 사후, 추적)와 집단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24)=6.404, p<.01$ . 주말음주량의 집단간 효과와 집단내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의한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2, 24)=7.091, p<.01$ , 특히 집단과 평가시기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24)=8.909, p<.001$ .

음주빈도의 집단내 효과에 대한 검사에서 평가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집단내 효과에

표 3.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대해 성격집단(2)과 평가시기(3)에 따른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주간음주량	성격(집단간)	18.286	1	18.286	5.494*
	오차	39.937	12	3.328	
	평가시기(집단내)	1.476	2	.738	1.788
	평가시기×성격	5.286	2	2.643	6.404**
	오차	9.905	24	.413	
주말음주량	성격(집단간)	21.460	1	21.460	2.182
	오차	118.032	12	9.836	
	평가시기(집단내)	.048	2	.024	.120
	평가시기×성격	1.190	2	.595	3.000
	오차	4.762	24	.198	
음주빈도	성격(집단간)	1.556	1	1.556	3.267
	오차	5.714	12	.476	
	평가시기(집단내)	1.857	2	.929	7.091**
	평가시기×성격	2.333	2	1.167	8.909***
	오차	3.143	24	.131	
음주통제효능감	성격(집단간)	31.500	1	31.500	4.455
	오차	84.857	12	7.071	
	평가시기(집단내)	22.333	2	11.167	26.800***
	평가시기×성격	31.000	2	15.500	37.200***
	오차	10.000	24	.417	

\*  $p<.05$ , \*\*  $p<.01$ ,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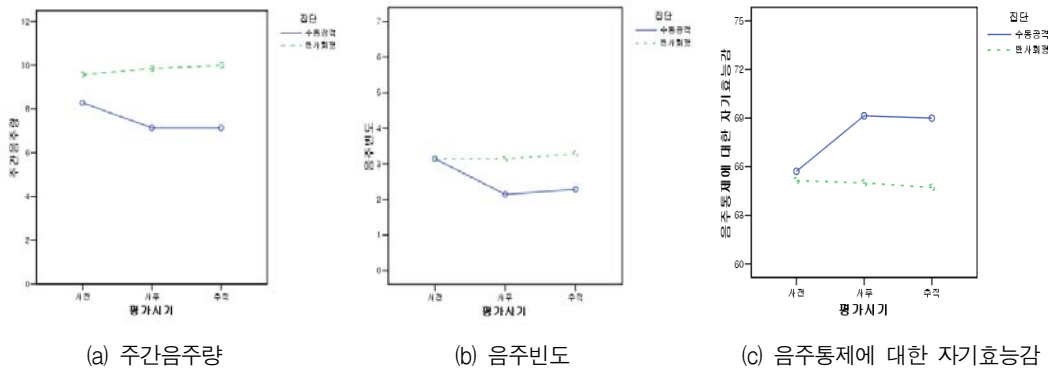


그림 1. 집단(2) 및 평가시기(3)에 따른 각 종속측정치들의 변화

대한 검사에서 평가시기에 의한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2, 24)=26.800, p<.001$ , 집단과 평가시기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24)=37.200, p<.001$ . 위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집단 및 평가시기에 따른 종속측정치들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의 주간음주량이 사전-사후에서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다,  $F(1, 6)=11.294, p<.05$ . 음주빈도 역시 사전-사후에서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으며,  $F(1, 6)=21.000, p<.01$ , 사전-추적에서도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다,  $F(1, 6)=10.800, p<.05$ .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도 사전-사후에서 유의하게 더 향상되었으며,  $F(1, 6)=50.824, p<.001$ , 사전-추적에서도 유의하게 더 향상되었다,  $F(1, 6)=48.091, p<.001$ . 그러나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의 주말음주량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적에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다. 한편, 반사회형 성격집단의 종속측정치들은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수동공격형 성격과 반사회형 성격 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 후 두 집단의 음주의 양(주간음주량, 주말음주량)과 빈도, 및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두 집단에게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는 음주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할 때, 일률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이 아닌, 차별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집단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예방 및 치료적 접근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음주문제를 가진 반사회형 성격집단보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음주행동의 감소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이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주간음주량이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다. 음주빈도는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으며, 사전-추적에서도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다.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 역시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유의하게 더 향상되었으며, 사전-추적에서도 유의하게 더 향상되었으며, 사전-추적에서도 유의하게

표 4. 집단 및 평가시기에 따른 단순주효과에 대한 F검증 결과

	수동공격형 성격집단		반사회형 성격집단	
	사전-사후	사전-추적	사전-사후	사전-추적
주간음주량	11.294*	5.053	.632	2.077
주말음주량	1.350	4.500	2.400	2.400
음주빈도	21.000**	10.800*	.000	1.000
음주통제효능감	50.824***	48.091***	.300	2.077

\*  $p<.05$ , \*\*  $p<.01$ , \*\*\*  $p<.001$ .

더 향상되었다. 그러나 주말음주량에서는 수동공격형 성격집단과 반사회형 성격집단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집단원들의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즉,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주말에 친구들과의 약속도 더 많아지고, 술자리 횟수도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말음주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감소되지 않았지만, 음주빈도는 프로그램 실시 전 보다 실시 후에 더 감소되었다. 이는 주말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음주량이 통계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빈도는 줄어들어,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조절하고 다른 대안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4주 후 추적 조사에서도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이 음주빈도와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에서 효과가 유지되었고, 반면에 반사회형 성격집단에서는 중속측정치인 음주의 양과 빈도,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에서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음주문제를 가진 반사회형 성격집단보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음주량을 더 감소시킬 것이라라는 가설 1과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음주문제를 가진 반사회형 성격집단보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음주빈도를 더 감소시킬 것이라라는 가설 2, 그리고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음주문제를 가진 반사회형 성격집단보다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더 증가시킬 것이라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주말 음주량에서는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감소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종결 후 집단원들의 피드백과정에서 스트레스관

리 프로그램이 반사회형 성격집단보다는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 더 효과적임을 밝혀주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후 집단원들의 피드백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술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운동을 했을 때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원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운동을 하고 나더니 한결 좋았다’라는 소감을 말한 반면에, 반사회형 성격집단원들은 운동을 하고 나더니 술생각이 났다는 소감을 말해 두 집단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모든 문제음주자의 알코올 의존 및 중독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실시했을 때 그 효과는 모든 문제음주자들에게 있어서 같은 효과 또는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수동공격형 성격집단에서만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모든 집단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반사회형 성격집단원들도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는 실시 후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아마도 처치빈도와 기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김성수(1998)의 반사회성 인격유형 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에서 상담의 빈도와 기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회기가 짧다면, 구성원들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결국 반사회형 구성원들에게는 반치료적인 힘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 회기는 1주일에 1회 정도가 적절하며 시간은 2시간 정도로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반사회형 성격집단은 일주일에 2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루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또한 반사회형 성격특성을 고려했을 때 회기가 짧아서 자신이 이해받고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채 가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끝마쳤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효과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고, 회기의 횟수에 의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반사회형 성격집단에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반사회형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의 결과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를 보면, Sussman, McCuller 및 Dent(2003)는 반사회적인 성격 유형은 통제력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Jackson, Sher 및 Wood(2000)는 자기 통제력의 차원으로써 모험추구와 충동성을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반사회형 성격집단이 처치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사후-추적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충동성 또는 통제력의 부족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후 검사가 실시되었던 시간은 방학이 끝나고 개강이 시작되었던 시기였는데 이들은 아마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 자신들이 속해 있는 동아리 모임, 및 기타 모임들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반사회형 성격의 특성으로써 충동성이나 인내력 부족, 또는 사회적인 통제력의 부족이 스트레스관리와는 상관없이 더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

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여진다. 즉, 성격 특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성격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면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는 실시 후에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신정, 2000; 신행우, 1999; Cloninger, 1987)에서 제안한 수동공격적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주가 아닌 다른 대안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음주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검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반사회형 성격의 소유자들이 보이는 높은 음주량과 빠른 음주 속도는 충동성과 인내력의 부족 같은 이들의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반사회형 성격집단의 음주의 양과 빈도 및 음주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내력의 부족, 충동성,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같은 반사회형 성격집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보다는 그들에게 부족한 충동조절 및 인내력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해볼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음주행동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 충동조절프로그램을 수동공격형 성격집단과 반사회형 성격집단에 실시하여 효과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이순(2002)이 주장한 맞춤형 중재법의 효과 및 집중훈련에 대한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많은 병원 및 사회복지기관 또는 기타 기관 등에서는 음주문제를 지닌 모든 집

단체에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음주문제가 있는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음주행동 감소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때, 각 집단원들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동공격형은 위해회피 때문에 직접적인 화를 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화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주위사람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음주거절훈련 보다는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인 스트레스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남의 강요나 요청에 의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음주거절 훈련을 실시한다면 프로그램에 대해 지루함을 느껴서 나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될 상황이 와도 참여기회를 회피해 버릴 수도 있고,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이순(2002)이 제안한 것처럼, 이들의 유형에 맞는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집단의 유형에 따라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이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음주를 가진 음주자들의 성격 유형 특성에 따라 알코올 의존 및 예방을 위해 적절한 치료적 접근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동공격형 성격집단과 반사회형 성격집단으로 나누어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여, 선행 연구의 제안을 검증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알코올 관련 연구의 대상이 일반 음주자보다는 병원에 있

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대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음주 위험성을 인식하게 하고, 잘못된 음주패턴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음주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4주 후 추적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입증해 보려 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관점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1회 이상의 음주 경험 및 폭음에 대한 경험은 남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결과로써, 앞으로 여성 피험자들도 알코올로 인해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피험자들에게도 음주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을 구성할 때 성격 유형별로 피험자를 선별해야 했기 때문에 각 집단의 사례수가 적어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약할 수 있고,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집단의 사례수를 좀 더 크게 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성격 유형과 관련된 변인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성격유형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성격유형의 특성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A유형의 성격특성은 무엇

인지 살펴보고,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이에 적절한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은 무엇이고, 또한 이러한 접근을 했을 때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다양한 성격 변인을 통해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은 개인 및 집단 특성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대기통제집단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기통제집단과 함께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2회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회기의 횟수가 피험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부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회기 횟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김성수 (1998). 반사회성 인격유형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 정 (2000). 문제성 음주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 및 단기중재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정연, 손정락 (2011).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 (MBCT) 프로그램이 문제음주 대학생의 우울, 충동성 및 문제음주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279-295.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행우 (1999). 성격 특성이 음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05-122.
- 이충현 (2008). 행복한 인간관계의 답이 숨어있는 성격의 비밀. 더난출판사.
- 정명진 (2010). 그루터기: 세상이야기. p.8. <http://blog.daum.net/peterhsh/7605686>에서 2012.6.29인출
- 최이순 (2002).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영 (2000). 문제음주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탁진국 (2000).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73-83.
- 한상미 (1997). 문제 음주 대학생에 대한 단기 인지행동 집단훈련의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Cahanlan, D., & Cisin, I. H. (1968). American drinking practices: Summary of finding from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f Alcohol*, 29, 130-151.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Griffin, M. L., Weiss, R., Mirin, S., Wilson, H., & Bouchard-Voelk, B. (1987). *The use of the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in drug-dependent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3, 281-291.
-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1990). *Broadening the base of treatment for alcohol problem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Jackson, K. M., Sher, K. J., & Wood, P. K. (2000). Prospective analysis of comorbidity: Tobacco and alcohol use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679-694.
- Perkinson, R. Robert. (2002). 신재정, 황인복, 김석산, 채숙희 역. 알코올 전문 치료자가 되는길. 하나 의학사. (원전은 1997에 출판).
- Sitharthan, T., Kavanagh, D. J., & Sayer, G. (1996). Moderating Drinking by Correspondence: An evaluation of a new method of intervention. *Addiction, 91*(3), 345-355.
- Sussman, S., McCuller, W. J., & Dent, C. W. (2003). The associations of social self-control, personality disorders, and demographics with drug use among high-risk youth. *Addictive Behaviors, 28*, 1159-1166.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Manual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 Geneva: Author.

원고접수일: 2011년 12월 16일

게재결정일: 2012년 12월 27일

# Effect Comparison of the Stress Management Program According to Personality Traits of Problem Drinkers: Antisocial Personality Trait and 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Trait

Hee-Young Kim                      ChongNak S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whether it is effective by selecting and administrating programs according to personality traits for alcohol dependence and addiction prevention in changing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with problematic drinking. Six-hundred college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Jeon-ju, who were selected by Drinking Problem Questionnaire and Shorter Version of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n, the final participates for this study was selected. seven for the 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group and seven for the antisocial personality group. They conducted a stress management program. Also, they conducted Drinking Quantity and Frequency Questionnaire, and The Controlled Drinking Self Efficacy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rinking behaviors more significantly changed the 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group than the antisocial personality group.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different therapeutic approach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personality traits and type of group when we conduct programs for problematic drinkers. Finally,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drinking Behaviors, passive-aggressive, antisocial personality, stress management program*